

피를 믿는 믿음

로마서 3: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한 진리가 인간 구원과 관계된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이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의 교리를 이해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교리를 이해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죄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과 연합되는 교리를 깨달을 수 있다. 최초의 낙원으로부터 둘째 낙원으로 이르기까지의 기한을 포괄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또는 각 신자의 체험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

위의 말씀에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을 묵상해 보자. 이 말씀의 뜻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에 참여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믿음대로 될지라**”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지극히 영광된 축복이 우리에게 헛되이 베풀어지고 만다.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충만함을 확실히 얻고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흘린 사건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위대한 사건이요, 죄 자체를 궤멸 시킬 뿐 아니라 죄의 결과들까지도 멸절 시키는 사건이었다.

오직 이 사건을 인정하며 그 공효를 얻고자 힘쓰는 사람만이 그 보혈의 축복 가운데서 충만한 믿음의 교제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단지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을 소망하는 자들은 보혈을 통해서 약속한바를 온전히 다 소유할 수 없다. 죄 자체에서 깨끗이 씻음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운데 살기를 구하면 보혈이 약속한 모든 축복을 믿고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영적인 충만을 갈망하고 소망하면 할수록 죄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더욱 강하게 된다.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끊임 없는 교제를 갖기를 바라는 소원이 생생할수록 그러한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마고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을 준비를 더욱 갖추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소원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회개”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단순한 지식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적용되지 않고서는 믿음이 자랄수도, 강하게 될 수도 없는 것이 더.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것(요일 2:27),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2:12)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리스도의 효력 있는 복된 능력을 올바르게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이 스스로 거기에 붙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깨달음은 신자가 정력을 기울여 배우고자 애쓸 때에 성령이 깨닫게 해 주신 것이다. 단번에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그 일에 시간과 정력을 기울여 배우고자 애쓸 때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각 말씀 말씀의 풍성하며 신령하며 살아 있는 내용을 믿을 뿐 아니라 신자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하나님께서 홀로 계시하실 수 있는 주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과 하나하나 마다 우리의 사고를 뛰어 넘는 신적인 능력의 나타남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말씀을 성령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사용하여야만 비로소 믿음이 강건하여져서 그리스도의 피가 베푸는 바를 인식하고 받아 들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일에 시간을 들이는 것이 얼마나 절실하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데 시간을 들여서,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잠기도록 해야 한다. 그 말씀이 정말 내 영혼의 소유가 되는 것은 오직 그 말씀이 나의 영적인 삶에 거할 자리가 있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될 때에만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하는 것이다.

소유하는 믿음, 아니 소유 당하도록 굴복하는 믿음 만이 효력이 있는 믿음이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들이는 **귀**이다. 하나님이 말씀 하시

는 바를 주의 깊게 들어서 깨닫는다. 믿음이란 들은 것을 생각으로만 남아 있게 하지 않고 참된 안목으로 바라보는 **눈**이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자세히 관찰한 것이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늘로 들어가 보좌에 뿌려지며,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에 뿌려져서 능력의 역사를 일으킨 것을 영으로 바라보기를 힘쓴 것이다.

믿음이 발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일은 주 예수님과 교제 속에서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되 다른 방식이 아니라 오직 구주 안에서- 구주를 통해서가 아니라 구주 안에서- 베풀어 주신 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구원이다. 자기의 피를 쏟으셨고 이제 그 피를 베풀어 주시는 그 분이야 말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으로 알아야 할 바로 그분이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승리를 거두는 일은 오직 그분과의 직접적인 살아 있는 교제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과 분리된 상태로 어떤 행동을 하시거나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 자신과 교제속에서 믿음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바로 그가 **“믿음의 주요 또는 온전케 하시는 이”**이다. 그러므로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의 발아래 조용히 앉아서 그의 사랑의 빛이 영혼에 비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강한 믿음을 얻는 확실한 방법이다. 그 피의 충만한 능력에 대한 지식에 이르도록 그런 믿음을 갖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저 이 교제를 실천에 옮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그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증거이다.

디도서 2:14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피가 바로 우리속에서 능력적으로 역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마음의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는 것이다. 마음의 문설주에다 피를 발랐다는 믿음이 더 넓어지고 더 밝아지고 더 강건하게 될 때 피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그 충만한 믿음을 사모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과 교제 속에서만 그 믿음을 찾을 것이다. 오직 주 예수님을 향한 전심의 굴복과 **자기중심의 삶을 희생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 불신앙이 사라져간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한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